

개헌 추진하고 AI·바이오헬스·재생에너지 핵심산업 육성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발표...5년간 210조 추가 투입 검찰·경찰·감사원·군 개혁...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국세 지방세 비율 7대3 조정

이재명 정부는 새로운 헌정체계를 만드는 개헌을 추진하고 인공지능(AI)·바이오헬스·재생에너지를 핵심산업으로 육성하며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국가를 만드는 등의 향후 5년 국가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등을 제시했다.

123대 국정과제의 서두는 개헌이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 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 재조정을 비롯해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제도 개혁 과제들을 제시해 강도 높은 개혁을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 재정운용 체계의 혁신 등을 통해

국정운영을 효율화하고, 민생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 등도 국정과제로 포함됐다.

남북관계는 화해·협력으로 전환, 다방면의 남북 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을 제도화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국익중심 실용외교 기조 아래 한미동맹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외교 다변화를 추진하면서 비핵화 및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또 새로운 경제 발전 전략으로 AI·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과 에너지 전환을 전면에 내걸었다.

이를 위한 국정 과제로는 AI 고속도로 구축을 통한 산업·지역·공공서비스의 AI 대전환,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에 기반한 RE100 산단 조성 및 재생에너지의 확대, 과학기술 인재 확보와 벤처투자 연간 40조 원 달성 등을 밝혔다.

독자 AI 생태계 구축과 차세대 AI 반도체 및 원천기술 선점, 공공데이터 적극 개방, 반도체·이차전지 산업 혁신, AI·바이오·재생에너지 분야의 규제 제로화와 메가특구 도입, 국민성장펀드 100조 원 조성 등도 정책과제로 선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민

또 △농어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K콘텐츠 산업 육성을 통한 K컬처 시장규모 300조원·방한 관광객 3000만명 달성 등도 경제 전략으로 내걸었다.

균형발전을 위해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국세·지방세 비율 7대3으로 조정 등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 국정철학을 집약적으로 구현할 '12대 중점 전략과제'도 제시했다.

부 차원에서 정책자원을 집중 투입해 성과를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3대 국정원칙은 경제와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로 설정됐고,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분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정했다.

국정기획위는 핵심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 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다.

재원은 세입 확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조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울러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가칭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조정·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이날 123대 국정과제는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 의원은 오는 18일 김대중 대통령 서거 16주년을 앞두고 13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

벼멸구 위기관리 '주의' 상황 전남농기원, 합동예찰 강화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명란)은 최근 벼멸구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위기관리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고, 농가에 철저한 예찰과 신속한 방제를 당부했다.

올해는 전남지역에 중국 남부 등에서 유입된 '벼멸구'가 6월 5일경 처음 관측됐으며, 이는 전년도 보다 약 15일 정도 빠른 시점이다.

벼멸구는 6월 중순부터 하순 사이에 비례가 확인됐고, 7월 이후 일시적으로 유입이 감소했으나, 8월 들어 다시 유입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만생종 벼의 출수기를 앞두고 집중적인 예찰과 방제가 필요하다.

벼멸구는 벼 생육 후기에 주로 피해가 발생하며 쌀 생산량과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고온 조건에서는 세대 전환 속도가 빨라져 올해도 급속한 개체 수 증가가 우려되는 만큼 가능한 벼 이삭이 폐기 전까지 방제를 집중 실시해 밀도를 효과적으로 억제해야 한다.

올해는 9월까지 고온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 위기관리 단계를 '주의'로 상향하고,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방제 시에는 지역농협을 통해 약제를 신속히 공급하고, 방역방제기를 동원하는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효과적인 방제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남농업기술원은 벼 생육 초기부터 벼래해 온 멸구류에 대해 현장에서 신속히 예찰 및 방제를 실시해 개체수를 줄여왔으며, 7월 이후에는 전 시군으로 예찰 범위를 확대해 발생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적인 방제를 이어가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김영록 지사, 경제부총리에 현안 국고 반영 요청

호남고속철도 2단계·국립 김산업 진흥원 등 중점 건의 국가균형발전·전남 미래100년 결정짓는 기반사업 강조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만나, 전남의 2026년 핵심 현안사업 6건에 대한 국고 예산 반영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기획재정부의 중점 심의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전남 주요 사업을 최대한 포함시키기 위한 전략적 일정에 맞춰 진행됐다.

김 지사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을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관광·물류 혁신의 핵심축"이라 강조하며, 광주송정-목포 구간 토지 보상이 98% 완료된 만큼 2026년 말 조기 개통을 위해 전 구간 예산 1315억원 전액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디즈니 사업과 관련해서 애니메이션·웹툰 산업 기반의 글로벌 소프트 파워 확장 전략을 제시했다. 현재 26개

기업이 입주해 확정했고, 연내 50개 콘텐츠 기업이 추가 입주할 예정이며, 콘텐츠 인재양성 거점기관 설계비 10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전라선 고속화 철도는 수도권과 호남권을 잇는 주요 간선축임에도 불구하고 경부고속철 대비 낙후된 점을 지적하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예타 통과와 2026년 사업비 30억원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전남의 풍부한 해양생태자원과 해양문화 자산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문화시설이 부재한 현실을 지적하며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건립 예타 통과와 용역비 54억원 반영을 요청했다.

김 산업을 관련해서, 연간 수출액 9억 9000만달러, 시장 규모 5조원을 넘는 국가 전략산업임에도 전남 지원기관이 없음을 언급하고, 국내 최대 김 생산



김영록 전남도지사(오른쪽)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면담을 갖고 전남 현안사업 지원을 건의하고 있다.

·수출 지역인 전남에 종자개발부터 수출 마케팅까지 전주기 지원하는 국립 김산업 진흥원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2026년 마스터플랜 수립비 10억원 지원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건전한 사업은 전남 미래 100년을 좌우할 기반 사업"이라며,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전남의 핵심 현안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부총리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시민이 앞장선다...광주시, 탄소중립 실천 본격화

시민실천단 '빛고를 닌제로 프렌즈' 출범...시민 100명 참여 정책제안·사회관계망서비스 홍보 등 생활 속 실천문화 확산

광주시는 1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과 함께 탄소중립 시민실천단 '빛고를 닌제로 프렌즈' 발대식을 열고, 시민 주도형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본격 추진한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시장, 고상연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장, 최지현 시의원, 시민실천단 100여명, 관계기관 등 120여 명이 참석했으며, 탄소중립의 중요성과 실천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성황리에 진행됐다.

'빛고를 닌제로 프렌즈'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시민이 자발적으로 일상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참여형 실천단이다.

광주시후에너지진흥원을 통해 공개 모집한 광주시민 100명이 참여, 일상 속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실천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에너지 절약 부문 탄소중립 교육, 탄소중립 슬로건 및 실천의제 도출, 탄소중립 정책 아이디어 제안, 탄소중립 선언문 작성 등이 진행됐다.

발대식 이후, 시민 실천단은 도출된 실

천 의제를 중심으로 생활 속 실천 활동,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시민 서약 독려 등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에너지전환, 녹색소비, 친환경 교통, 자원순환, 흡수원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천활동을 펼쳐 광주시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시민 파트너로 참여할 예정이다.

강기정 시장은 "온실가스 배출로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2045 탄소중립 도시 광주' 실현을 위해서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빛고를 닌제로 프렌즈'가 시민 주도의 탄소중립 실천의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이 의원은 오는 18일 김대중 대통령 서거 16주년을 앞두고 13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

이개호,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참배 "4선 의원보다 김대중 대통령직인수위 행정관 경험 더 소중"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당양·함평·영광·장성)은 13일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을 거울 삼아 지금 전남이 처하고 있는 지역 낙후를 극복하고 도민의 삶을 지키는 정치인의 책무를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4선 국회의원과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경험보다 '김대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행정관 경험이 더 소중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는 18일 김대중 대통령 서거 16주년을 앞두고 일찌감치 김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은 이 의원은 해외 출장 관계로 당일 추모식 참석이 여의치 않아졌기 때문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 의원은 그동안 매년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일을 맞아 신안 하의도 생가를 방문하거나 기념행사에 참석해 해 왔다.

이 의원은 지난 1998년 1월 옛 내무부 지방자치 운영담당관으로 근무할 당시 '김대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부보좌 행정관으로 파견돼 근무한 바 있다.

참배를 마친 이개호 의원은 "지난 1998년 IMF 사태를 극복한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을 본보기로 위기에 처한 민생을 구하는 데 조그만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 전남지사를 찾는 까닭은 해외 출장 관계로 당일 추모식 참석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광주 도심서 문화예술 소풍 '자-서머 파크닉'

16일 시청 야외음악당

광주시는 오는 16일 시청 야외음악당에서 가족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인 도심 속 문화예술 소풍 '자-서머(G-SUMMER) 파크닉'을 개최한다.

광주시가 연중 12차례 운영하는 아티프 크닉 중 여름행사인 '자-서머 파크닉'은 공연(송사랑쇼, 기구가품쇼), 오락, 물놀이(물 미끄럼틀, 대형 풍장, 그늘막 수영장), 체험프로그램(여름 별가림모자 구

미기, 대나무 물총 꾸미기, 비치볼 꾸미기 등 10종)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광주시는 안전관리를 위해 구역별 안전 관리요원을 두고, 응급상황에 대비해 의료진과 구급차를 상시 배치한다. 또 폭염에 대비해 쉼터, 얼음물을 제공한다. 물놀이장은 '50분 운영, 10분 휴식' 한다.

자세한 일정은 '2025 아티프크닉 블로그(blog.naver.com/gi_artpicnic)' 또는 운영사무국(062-954-822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동민 기자 yang00@